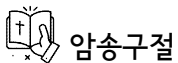


너는 시냇가에

*반주음원QR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신 19:3)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신명기 19:1~13)



1 함께 찬양하기

피난처 있으니 (찬 70장)

-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 2) 이방이 떠돌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신명기 19:1~7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췄다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1892-1978)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가족 중 몇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비참했습니다.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고문에 못 이겨 질러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그녀는 “주님,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저에게 믿음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보였습니다. 개미는 자기 앞에 물웅덩이가 보이자 그 옆의 조그만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코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코리,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회복하였고 그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②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으로 도피하게 하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위험하고 힘들어 피할 곳을 찾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서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② 도피성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안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으로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신하는 성읍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법은 일반적으로 동해복수법(同害復讐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서는 맞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또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제도이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짓값을 치른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여 날마다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피하여 안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